

1위 팀 맞아? KIA 충격의 30실점 대참사



김도현 대량 실점에 2.1이닝 강판...투수 8명 넘게 투입 KIA는 야수가 마운드·두산은 투수가 타석에 서기도

KIA 타이거즈가 '이닝' 늪에 빠졌다. KIA는 올 시즌 뜨거운 화력으로 1위 질주를 이어가면서 'V12'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몇 차례 위기에 돌고 굴러 선두 자리를 지켜왔던 KIA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충격적인 패배가 누적되면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다.

1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의 15-15 무승부를 기록했던 '사직 쇼크'에 이어 이번에는 홈에서 '30점 신기록'의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지난 31일 선발로 나선 김도현이 2.1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면서 기습적으로 밀린 KIA는 실책성 수비까지 이어지면서 두산에 날개를 달아줬다. 2-1로 리드를 가져온 2회말 하지만 3회 대거 7실점을 했고, 5회에도 5실점이 남았다. 6회에는 무려 11명의 두산 선수가 홈에 들어왔다.

이날 두산은 새 외국인 선수 제러드의 멀티포 포함 4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홈런 1위 팀 KIA를 초토화 시켰다. 4개의 홈런 포함 장단 28안타를 터트린 두산, 여기에 KIA 불펜이 13개의 볼넷까지 허용하면서 점수판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이우찬, 제러드, 강승호는 무려 8타석에 들어서기도 했다. 김도현을 시작으로 김기훈-곽도규-최지민-이준영-김현수-김대우-장현식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불복은 두산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회초에는 KIA의 강건 외야수 박정우가 마운드에 오르는 장면도 연출됐다. 박정우는 김재환을 2루 땅볼, 강승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그리고 앞서 지명타자를 소멸했던 두산에서 투수 권휘가 타자로 등장했다.

야수가 마운드, 투수가 타석에서 대결하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됐다. 박정우는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출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던 KIA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KIA가 장식한 유일한 삼자범퇴 이닝이기도 했다.

박정우는 9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앞서 타자로 상대했던 권휘와 '리턴 매치'를 갖기도 했다. 결과는 중견수 플라이였고, 이 이닝에서 득점에 실패한 KIA는 6-30의 대패를 기록했다.

두산은 선발타자 전원 안타에 이어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30점'이라는 KBO리그 역대 최대 득점 팀 새 주인공이 됐다. 앞선 기록은 삼성이 1997년 5월 4일 LG와의 경기에서 작성한 '27점'이다.

최대 득점 차 신기록도 만들어졌다. KIA는 2022년 7월 24일 사직 원정에서 롯데를 23-0으로 꺾고 '23점 차' 승리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24점 차'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다.

이닝 특히 선발진의 이닝이 부른 대참사다. KIA는 타격으로 1위 질주를 하고 있지만 선발진 부상 변수가 이어지면서 고전하고 있다. 이외리, 윌 크로우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고, 윤영철도 척추 피로 골절로 자리를 비웠다.

시즌 내내 선발진 구상을 고민하면서 '이닝'과 싸우다 보니 불펜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피로도 쌓인 불펜의 극복에,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타자들의 컨디션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닝'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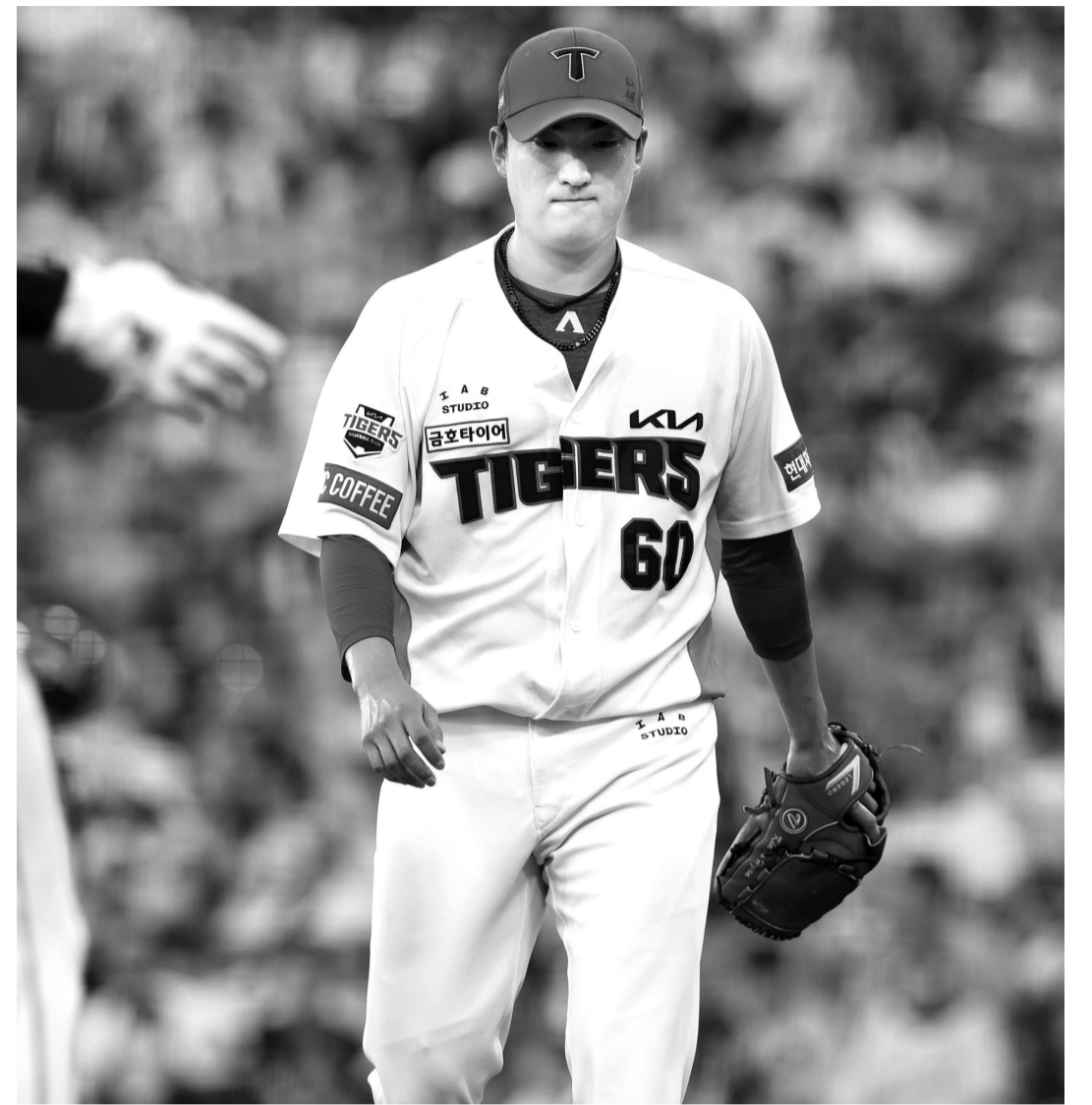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범호 감독은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생각할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 선발을 2-3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중간 투수들이 힘들어하고, 중간에 소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비 이닝이 길어지면서 야수들이 지쳐가는 모습이 보여 우려스럽다"면서도 "중간에서 투수를 계속 끌고 가지 많이 안 던져줬던 선수들 한정 개수가 있다 보니 부상 염려도 있다. 중간 투수도 그렇고, 선발로 나가는 선수들도 책임질 수 있는 이닝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수진의 책임감과 적절한 전력 운용으로 야수들의 컨디션을 극대화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펼쳐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다.

한편 이날 전국 5개 구장에서는 무려 109점이 폭발하면서 1999년 더블헤더 포함 7경기에서 만들어졌던 기존 단일 최다득점(106점)을 넘어 신기록이 작성됐다.

투고타저 분위기가 속 무더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나온 결과다. 여기에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도 신기록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큰 점수차가 나오면 주심이 넓게 스크라이크 존을 가져가지만, ABS는 상황에 상관없이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하면서 대량득점에 영향을 미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현

'전체 1순위' 페퍼스 바르바라 자비치 "함께 하게 돼 영광"



197cm 장위와 '트윈타워' 기대

외인 드래프트 1순위 바르바라 자비치가 AI페퍼스에 합류했다. 페퍼스는 1일 2024-2025시즌 외국인 선수로 선발한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의 입국 소식을 전했다.

크로아티아 국적의 바르바라 자비치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된 2024-2025 KOVO 여자부 외국인선수 트레이닝에서 페퍼스에 1순위로 지명됐다.

신장 191cm의 자비치는 앞서 아시아쿼터 트레이닝을 통해 페퍼스에 지명된 장위(197cm·중국)와 함께 '트윈타워'를 구축해 팀의 높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비치는 "새로운 시즌을 AI페퍼스와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며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류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국 NCAA 디비전 1 아칸소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비치는 졸업 후 벨기에와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스위스 등 여러 리그에서 활약했다. 지난 해에는 크로아티아 대표팀 소속으로 2023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 발리볼네이션스 리그(VNL)에 참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멀티골' 손흥민, K리그 상대 화끈한 골

토틀넘 4-3 승... "팬들 응원 덕분에 재밌게 경기"

2년 만에 한국 팬들 앞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토틀넘·사진)이 "많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재밌는 경기를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손흥민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토틀넘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2골뿐만 아니었다. 손흥민은 전반 29분 터진 데안 클루세브스키의 선제골을 유도하는 강력한 슈팅도 보여주며 이날 터진 4골 가운데 3골에 관여하는 특급 활약을 펼쳐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손흥민은 득점 뒤에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철각 세리머니'를 펼쳐 보이는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더불어 전반 38분 '손흥민 존'(zone)에서 여지없이 득점에 성공, 그동안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기막힌 골 장면을 6만 3천여명 팬 앞에서 펼쳐 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후반 18분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떠날 때는 팬들의 환호에 환한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 끝난 뒤 방송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무더운 날씨 등 환경이 100%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두 팀 모두 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며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팀이 승리하고 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클루세브스키와 호흡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셀레브' (클루세브스키의 별명)는 많이 뛰고 전장에서 부딪쳐주면서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선수"라며 "어떤 플레이를 해야 서로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토틀넘의 새 시즌 준비에 대해서 "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우리 팀을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밀인 '땅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팀을 위



해 희생하고 동료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흥민은 오는 8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독일 명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축구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은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와 '창과 방패'의 대결은 토틀넘-뮌헨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기대감을 높인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김민재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비수"라며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유럽 무대에서도 상당히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칭찬부터 했다.

그는 "김민재와는 대표팀에서 항상 같이 뛰었는데, 이렇게 상대 팀으로 뛰는 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 정말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 근대 5종 꿈나무들, 전국대회서 금빛 활약

'쌍둥이' 이태균·강선 형제 남초부 2종 개인전 1·2위 등

전남 근대 5종 꿈나무들이 '제43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31일 홍천종합운동장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내며 지난 6월 해남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 이어 다시 한번 전남 근대 5종의 힘을 보여줬다.

초등부에서 '쌍둥이 형제' 이태균·이강선(장성사창초 2년) 나란히 남초부 2종 개인전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각각 총점 510점(수영 237, 육상 273), 498점(수영 235, 육상 263)을 만들면서 3등과 총점 50점 이상의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준 두 사람은 그러나 단체전

에서는 출전 인원 부족으로 함께 점수에서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한다.

여초부 2종 개인전에는 황채원(장성사창초 2년)이 총점 506점(수영 243, 육상 26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등부에서도 메달이 이어졌다. 남고부 4종 개인전에 출전한 김영하(전남체고 3년)는 수영(310점), 레이저런(670점)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펜싱(260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총점 1199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영하는 4종 단체전에서 허민준(전남체고 2년), 조민우(전남체고 3년)와 호흡을 맞춰 총점 3500점을 만들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희섭 전남근대5종연맹회장은 "선수들의 기량이 날이 날이 늘어가는데, 꿈나무 선수들



장성사창초 황채원(가운데)이 지난 31일 '제43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여초부 2종 개인전 1위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적극적으로 지원해 서양관 선수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발굴·육성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